

1월의 육계전망

본회 시장조사분석과

“월중내내 냉동 닭고기 지속 출하로 육계값 상승 제동 - 환우계 생산가담으로 병아리 증가”

육계업계의 골은 점점 깊어만 가고 하나 둘 도산농가가 속출하면서 불경기의 마지막 수순을 밟은 듯 하다. 과연 지금과 같은 불황을 막을 수 없었을까. 아니다.

이미 2월부터 종계입식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때부터 예고했지만 누구하나 자기 일처럼 받아들이지 않았다. 현재의 상황에 안주하고 양계인의 자기이기주의 탓이 아닐까 한다. 작금의 불황기에도 남이 줄여주겠지, 도산하겠지 그러면 생산량이 줄어 큰 호황이 올 것으로 기대하

는 양계인이 너무 많다. 이것이 양계인이 믿는 진리임에 발전이 없을 것이다.

□ 분석

11월 육계용 배합사료는 전기68,412M/T 후기 42,658M/T으로 전기는 계속 증가하고 후기는 점진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종계사료는 21,937M/T으로 7월 이후 근소하게 줄어들고 있고 특히 10월 이후 증가하여야함에도 감소하고 있는 것이 예년과 다소 다르다.

종계입식수수도 경기불황의 영향으로 11월 229,600수로 전월에 비해 28.3% 감소했다. 그러나 불황여파로 신계군이 산란하고 환우가 조기에 들어 가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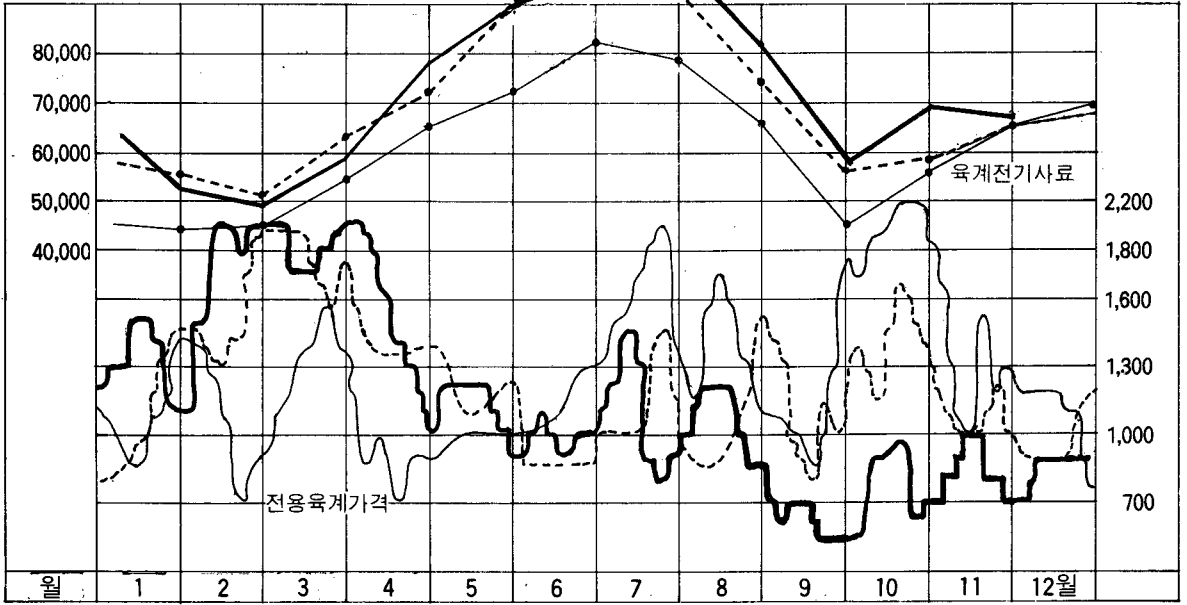
생산비 이하가 벌써 만 4개월, 아직도 끝이 보이지 않고 있다. 생산자의 힘으로 소비를 늘려 육계값을 올리기에는 역부족이고 그렇다면 생산감축 뿐이다.

동절기 사료값도 비싸고 연료비 등으로 생산비가 높고 냉동품이 동절기를 맞아 꾸준히 출하되고 있어 육계값 회복이 더욱 어렵다.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생산을 줄이는데 다 같이 참여하고 이후 입식을 해도 늦지 않을 것이다.

표1. 10대회사 주간사료생산량(M/T)

구 분	10월				11월				12월			
	29-5	6-12	13-19	20-26	27-2	3-9	10-16	17-23	24-30	1-7	8-14	15-21
전 기	4,614	4,913	5,085	4,888	4,656	4,321	4,821	4,968	6,763	4,774	4,025	3,490
후 기	3,674	2,834	3,087	3,756	3,484	3,381	3,499	3,041	3,652	3,098	4,100	3,102
계	8,288	7,747	8,172	8,644	8,140	7,702	8,320	8,009	10,415	7,872	8,125	6,592
종계95	2,088	2,350	2,385	2,139	2,316	2,085	1,958	1,863	1,957	1,969	1,872	1,798
종계96	1,832	1,553	1,462	1,735	1,628	1,670	1,844	1,754	1,932	1,580	1,670	1,651



월별 육계전기사료 생산량과 전용육계가격 '94—'95---'96

표2. 사료, 병아리(생산수, 잠재력)가격비교

월	년 도	사료(천톤)		병아리 생산수 (천수)	병아리 생산잠재력 (천수)	가 격 (원/kg)	비 고* (천수)	
		전 기	후 기					
1	94	45.8	33.1	28,631	31,886	1,169	30,000	
	95	57.1	35.8	35,670	29,143	1,190	31,000	
	96	52.7	34.7	32,959	33,735	1,323	31,500	
	97					38,158		
2	94	45.5	29.9	28,461	32,137	1,098	27,000	
	95	50.6	28.3	31,622	30,031	1,496	28,000	
	96	49.7	28.8	31,086	32,927	1,776	29,000	
	97					37,751		
3	94	55.8	35.1	34,884	34,194	1,229	30,000	
	95	64.7	28.9	40,486	32,546	1,852	30,000	
	96	59.3	27.8	37,036	34,382	1,871	32,000	
	97					39,070		
4	94	66.1	41.2	41,341	37,188	928	30,000	
	95	72.1	36.0	45,086	34,527	1,403	31,000	
	96	79.7	40.6	49,781	36,692	1,603	32,000	
	97					39,767		
5	94	71.9	42.7	44,918	38,189	985	35,500	
	95	89.6	42.5	56,027	37,751	1,185	35,000	
	96	89.8	53.9	56,120	38,781	1,100	36,000	
	97					39,423		
6	94	82.0	44.3	51,252	35,884	1,090	38,500	
	95	97.6	45.8	60,998	39,525	922	39,000	
	96	97.1	59.2	60,683	39,475	970	41,000	
	97					39,500		

7	94	79.5	43.7	49,703	32,424	1,616	44,000	
	95	94.4	59.3	59,027	39,564	1,090	46,000	
	96	99.5	67.1	62,216	37,874	1,048	47,000	
	97							
8	94	66.0	46.3	41,253	29,693	1,337	32,000	
	95	74.2	54.6	46,388	37,217	1,024	34,000	
	96	81.7	57.0	51,047	35,429	1,077	35,000	
	97							
9	94	45.2	35.9	28,263	28,421	1,178	30,000	
	95	57.7	48.6	36,066	34,509	1,110	32,000	
	96	58.8	46.2	36,773	34,781	654	32,000	
	97							
10	94	56.1	25.3	35,034	28,880	2,129	30,000	
	95	58.8	36.5	36,773	33,503	1,403	31,000	
	96	69.6	41.7	43,505	35,694	786	32,000	
	97							
11	94	65.5	35.8	40,963	29,558	1,360	29,000	
	95	65.5	43.1	40,916	33,575	1,078	30,000	
	96	68.4	42.6	42,758	36,916	810	31,000	
	97							
12	94	70.1	44.4	43,799	29,150	1,142	27,000	
	95	68.0	45.3	42,485	33,859	961	29,000	
	96						30,000	
	97							
계	94	749.6	457.1	468,507	387,605	1,272	383,000	
	95	849.7	509.1	531,068	415,750	1,227	396,500	
	96				434,161		408,500	

* 가격안정이 기대되는 해당월의 입식적정수